



①능인선원의 모든일은 신도들이 '일아서' 다 한다. 상담 봉사자를 하고 있는 신도들. ②병원에서 간병 봉사활동을 하는 일도 주요 활동중 하나다. ③능인선원 본부장들이 10월 12일 선원 극락전에서 능인선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④능인선원이 경기 화성시 일대에 설립 추진 중인 4년제 정규 '한국 불교대학원 대학'의 조감도. ⑤능인불교대학 37기 수강생들이 10월 12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원장 지광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차곡차곡 공부하며 신행 새바람

불교대 출신 20만명 각계서 중추적역할...가정법회 1천여 곳 운영

-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2 구룡사
 - 3 능인선원
 - 4 부산 삼광사
 - 5 안국선원
 - 6 한마음선원

● '신도 사관학교' 불교대학...지식인 불자 호응
 "해외에 나가서 불자들을 만나면, 꼭 한 명은 능인선원 불교대학 출신이에요."
 능인선원 홍보출판원 이정희 부원장(57·수지심)이 말부터 했다. 그리고는 한 마디 덧붙인다. "몇 기세요?"
 20년 동안 대학에서 배출한 인원이 20만 명. 이 부원장은, 능인선원의 성장 배경에는 불교대학 동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나이와 상관없이 이 대학 졸업생들은 금세 선·후배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2기수씩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동문에 편입되면서 그 끈끈한 조직력은 배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수도권 지역의 웅만한 사찰 신도회 임원들도 여기서 불교를 배웠고, 잘 나가는 직장·직능불자회 임원들도 이 대학을 거쳤다.
 그럼, 불교대학의 어떤 부분이 오늘의 능인선원을 만들었을까. 체계적인 교과과정도 그 원동력이 있다. 먼저 기초반에 들어오면, 4개월간 불교기초를 차근차근 배운다. 지각·결석·조퇴도 엄격히 제한한다. 1개월 이상 결석하면 이에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 그 만큼 '능인선원맨'이 되기 어렵다. 기초반을 마치고, 경전연구반·법사반·법사대학원 등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총 4년 동안 기본교리는 물론 주요 경전, 불교사·불교사상·불교예술 등 실·용 없이 불교의 세계로 빠져들게

서울 능인선원(원장 지광). 지난 1984년 서초동 무지개상가에서 보증금 5백만 원, 사글세 15만 원, 28평 규모로 시작한 도심사찰이다. 당시 불교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서울 강남에 체계적인 불교교육과 신행활동, 현대적 감각의 법문 등으로 재가불자들에게 '빚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현재 신도 수 20만 명, 1천여 곳의 가정법회, 지상 3층 지하 5층의 현대식 건물 등이 이를 대변한다. 또 지금까지 서울 지역 220여 곳의 사찰 신도회원들이 능인불교대학을 거쳐 가는 등 이미 불교계에서는 '신도 사관학교'라고 불려질 정도다.
 능인선원은 특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불자층도 두텁게 했다. 20년 넘게 불교대학에서 배출한 동문 중 전·현직 국회의원만 50여 명이 넘는다. 장·차관급 관계, 재계, 언론계, 기업 임원, 교수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능인불교대학에서 공부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15기다.
 능인선원의 성공 열쇠는 단연 중산층 포교에서 찾을 수 있다. 선원장 지광 스님이 내건 '기복불교 극복, 산중불교 탈피'의 교육 슬로건은 당시 서울 강남지역 중산층 지식인 불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1986년 3월 기초반 1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 37기가 공부하면서 '20만 신도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재가불자 운동의 진원지 역할도 특특히 해냈다. 기존의 '산중불교(山中佛敎)'라는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는 한편, 기록에 젖은 재가불자의 신행패턴을 실천적인 '작복(作福)'으로 전환시켰다. (02)577-5800. www.gotobuddha.org

한다. 이처럼 선원 개원과 동시에 개설된 불교대학은 최근 들어 거가불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직장·직능불자회의 핵심 동력 발전소가 되고 있다.
 ● '능인장·능인등' 법회조직 책임 관장
 불교대학이 능인선원 조직체계의 씨줄이라면, '능인장·능인등'은 날줄이다. 최소 조직단위 능인등은 10여 명으로 조직돼 있고, 1천여 곳의 가정법회 기초가 된다. 능인장은 능인등 10곳이 모여 각 구역법회를 관장한다. 여기에 헌법사(50여명)와 정법사(60여명)란 지도위원단이 가정법회를 직·간접적으로 지도한다. 헌법사는 신일 법우, 불교대학 입학생 등의 신행 활동을 이끌어 주고, 원로신도회격인 정법사는 서울 강남·강북, 수도권 등 전국 52곳의 광역법회를 책임·관장한다.
 이처럼 조직화된 능인장, 능인등 제도는 능인선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창건 20주년을 맞은 능인선원이 현재 본부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 잡은 포이동·서초동 법당과 삼성병원 법당, 자카르타 법당, 북한산 국녕사, 신림동 등용사 등을 운영해 한 밑바탕이 됐다. 포이동 법당에 위치한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청소년·노인·법률지원·결혼상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인근 빈민지역인 구룡마을을 돕고 있다. 또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과 동시에 문을 연 삼성서울병원 법당은 환자들을 위한 법회,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 일상불란한 3백여 '무보수' 상근 봉사자
 능인선원 운영은 1원(출판홍보원) 14본부(관리본부, 기법, 가정법회총본부, 교육, 기도, 법회, 재무, 상조, 구매 등)로 구성된 본부장 회의로 이뤄진다. 선원장 지광 스님은 법문과 기도, 신행 상담 등 정서적인 지도 역할을 맡을 뿐이다. 때문에 선원 운영은 전적으로 3백여 명의 무보수 상근 봉사자들이 '일아서' 한다. 총무행정은 물론 신도관리, 능인신문 제작, 신일 신도의 신행상담, 심지어 재정분야까지도 신도들이 맡는다.
 굵직한 사업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본부장 회의에서 다뤄진다. 여기서는 선원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기획하고 결정한다. 논의 방식은 민주적이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본부장 상이한 의견을 다수결로 해결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려도 '실득'과 '이해'를 통해 의결을 조율한다. 때문에 본부장들의 참여가 자발적이다. 또 사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기에 신도들의 일처리가 주체적이다. 최소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선원 일이 빈틈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능인신행은행, 생협 '푸른나라', 상조회 등을 구성, 신도들간 상호부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선원 신도들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능인신행은행은 수신, 여신, 각종 공과금 수납 등 신도들의 은행 업무를 돕고 있으며, 생협

“잘 키운 지도자 한명 수백만 명을 불자로”

인터뷰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제대로 키운 불교 지도자 한 명이 수백만 명을 불자로 만듭니다. 결국 사람이 다 합니까. 따라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광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 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한국 불교가 대중화·현대화·조직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내줄 수 있다는 이치다. 그래서 스님이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4년 정규 한국불교대학원대학 설립, 학교 건립을 위해 1단계 사업에 5백억 원을 쏟아 붓는 이유이다.
 스님은 해외 포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올 초에는 미국 뉴저지 포틀러 인근 10만여 평 부지를 사들였고, 지금은 미국 정부로부터 종교용지로의 변경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한국불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현지인 포교를 해야 한다는 판단도 한 몫을 했다.
 “이제는 한국불교도 우물 안 개구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다른 나라의 불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님은 이와 함께 국내에 포교당을 늘릴 계획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에 지방포교당을 개원할 생각이다.

‘푸른나라’는 농촌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선원 재정의 투명성 선언으로 이어졌다. 올해 재단법인 능인선원,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학교법인 능인선원 등 3곳을 외부 회계법인에 공개 감사를 받고, ‘돈’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 4년제 '한국불교대학원대학' 2007년 개교 예정
 능인선원이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4년제 정규 '한국 불교대학원대학' 건립이다. 이미 2002년 4월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끝냈고,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 10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개설 학과 구상도 마무리했다. 불교전 법학과, 국제포교학과, 불교예술학과, 불교문헌정보학과, 동양 의학과 등 5개과에 신입생 1백여 명을 선발한다. 올해 내 대학 건립의 첫 삽을 떠 개교 년도를 2007년으로 잡았다.
 능인선원은 웅대한 대학 건립을 위해 오는 11월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법회 및 대학 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올해 말까지 북한산 국녕사 복원 불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선 중기 사명대사가 국악에 대비해 창간했다는 국경사를 지난 1998부터 복원 중인 능인선원은 현재 대웅전, 산신각, 종각, 요사채 등을 완공, 전통사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1년 관악구 고시촌에 개원한 등용사를 명실공히 예비 법조인인 사법시험 고시생들의 수행처로 자리매김 시킨다.
 대사회적 활동도 강화한다. 기존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 봉사활동을 한층 내실화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자살 급증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자살방지 예방 캠페인 전개, 자연보호운동 등을 벌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모습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